

출장복명서

2011. 12. 13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김기환

1. 프로젝트명

한국경제 : 현재까지의 발전과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여행목적

Trilateral Commission Bali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함

3. 여행동기 및 배경

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회의에 참가하는 아태지역의 저명한 경제 및 국제 관계 전문가들과 세계 및 아태지역 경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4. 여행기간

2011년 11월 24일 - 2011년 11월 28일

5. 여행국

인도네시아(발리)

6. 여행자

김기환 연구자문위원

7. 주요 면담자(기관)

- Barry Desker, Dean, S.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Jesus P. Estanislao, Chairman, Institute of Corporate Directors
- John Hewson, Chairman of the Board, Equiti Capital Limited
- Naoki Tanaka, President, Center for International Public Policy Studies
- Cesar E. A. Virata, Corporate Vice Chairman, Rizal Commercial Banking Coporation

8. 주요활동성과

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Trilateral Commission Bali Regional meeting에 참석함으로써 지난 약 11개월에 걸쳐 ‘한국경제 : 현재까지의 발전과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얻게 된 가설 및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논의하기 위함이었음.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197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적 부상, 1980년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 지난 20년에 걸친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최근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한국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2. 특히 한국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오늘 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지속적 발전을 해오며 특히 2010년 서울G20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음
3. 현존하는 세계 여러 중심지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재화를 주변 지역 또는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높은 성장활력, 풍부한 일자리, 원만한 소득분배, 주변국가들과 경제협력, 안정적인 안보를 유지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달을 이룩하고 있음
4. 따라서 특히 최근 들어 세계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시급히 경제정책을 개혁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서둘러 아시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많음.

이번 출장 중 세계적인 권위자 및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누는 것은 예비적 시도에 불과하며, 향후 보고서 초안이 작성 되는대로 그것을 토대로 추가적 의견 교환을 하기로 이들과 합의했음.